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제정 1주년』을 기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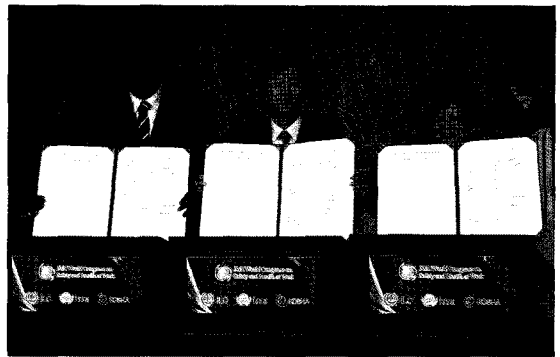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선언사무국장 이준원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서』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공동 개최기관인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서울선언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토의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8년 6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의 안전보건대표자회의를 통해 채택된 세계역사상 최초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적 선언서이며, 전 세계 정부, 사업주, 근로자 등 사회 각 주체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안전보건 헌장이다.

환경분야에서 1992년 리우선언 이후 발표된 교토의정서가 세계 각국에 지구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서(Seoul Declaration on Safety and Health at Work)는 지구촌 안전보건의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전 세계 산업안전보건 지도자와 의사결정자가 참석하여 산업안전보건의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세계인권선언에서 언급하고 있는 권리를 확대 해석하게 되었다.

서울선언의 제정배경은 다양한 산업재해 및 질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수많은 근로자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인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서울선언서는 모든 국가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식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향상을 위한 전환점과 페라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1세기 들어 산업안전보건 문제가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이슈를 중심으로 전략계획 등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자국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향후 전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국제적인 행동방향을 제시한 서울선언의 제정 및 확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서울선언의 실행확산 및

홍보를 위하여 2009년에 서울선언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선언서 실행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와 함께 서울선언 확산을 위해 공단직원을 ISSA에 파견하여 공동사무국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서울선언 국제위원회 구성·운영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의 확산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선언 1주년 기념행사, 제2차 서울선언 글로벌 포럼 등 다양한 국내의 행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의 취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서는 일과성으로 끝나는 선언이 아니라 2011년에 개최되는 차기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까지 산업안전보건의 수준향상을 위해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동 선언의 실천방향과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여 산업안전보건의 국제적인 수준을 향상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서에 명기된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안전보건을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로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 동안의 의식전환 운동의 범위를 넘어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정착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2월 비준한 ILO의 협약(산업안전보건 증진체제에 관한 협약 제 187호)을 성실히 이행하고 기타 산업안전보건 협약을 지속적으로 비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사업주는 수준 높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하고 작업장의 안전보건 향상을 경영관리의 핵심으로 선정하는 한편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시 근로

자와 근로자대표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안전보건 지침과 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함과 동시에 안전보건대책을 위한 경영관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서울선언이 제정, 채택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하였고 향후 서울선언의 취지 확산 및 실행을 위한 노력을 통해 국가 안전보건 예방문화 조성 및 증진에 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범국가적인 산업재해 예방체제 구축을 통한 안전보건 예방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안전보건 전문기관 및 사회보장기관 등이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안전보건 발전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 노사정 및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이 산업안전보건 발전방향에 대한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이루어 채택한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서가 산업안전보건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실천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사회 각 주체인 우리는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회전반의 공동책임을 인식하고, 산업재해 감소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